

Vol.09

Autumn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Theme **해운의 미래를 바라보는 교류의 장**

스페셜 **해운시황·해양금융 소통의 장을 열다 KOBIC Maritime Conference**

해운 INSIDE **바다로 세계를 누비는 미래 세대의 롤모델 - 조소현 협회장 인터뷰**

KOBIC는 지금 **KOBIC 신입 인턴을 소개합니다**

부산 핫스팟 **감성 충만한 가을 속을 거닐다, 부산 남구**

Vol.09

Autumn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에 SEA(바다)를 활용한 이름으로, 바다와 해운업에 영양을 보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계간 소식지(사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기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글, 공사 임직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T. 051-795-1500



<비타민 SEA> 소식지는 QR코드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bc.or.kr



Theme
해운의 미래를 바라보는 교류의 장



스페셜
해운시황·해양금융 소통의 장을 열다
KOBC Maritime Conference



바다로 잇는 NEWS
SEA THE Future



KOBC는 지금
해진공 신입 인턴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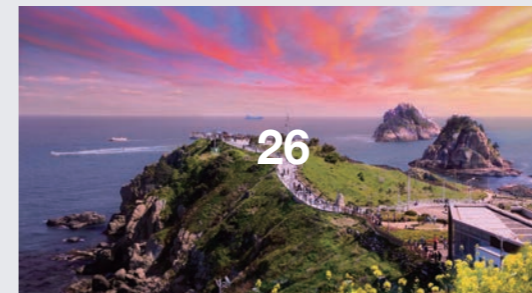
같이 가치海
함께 가요, 워킹맘 with 해진공



해운 INSIDE
바다로 세계를 누비는 미래 세대의 롤모델
- 조소현 협회장 인터뷰



알쓸신海
바다를 살리는 길, 녹색해운항로



부산 핫스팟
감성 충만한 가을 속을 거닐다
부산 남구



바다, 문화
추석에 과식했다면, 운동 욕구 샘솟는 영화
<리바운드> <스프린터> <드림> <족구왕>



직장인 공감Talk
당신을 위한 필요병 퇴치 꿀팁

34

KOB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36

Clean KOBC
KOBC 청렴 윤리 활동 소식
긴가민가 청탁금지법(금품 등의 수수 금지)
KOBC 청렴 스크린

38

Feel Sea Good
바다가 차린 식탁, Ocean recipe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1. <비타민 SEA>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더 좋은 사보를 만들기 위해 <비타민 SEA>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 참여기간 : 11월 30일까지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신 10분께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2023 KOBC Maritime Conference

1st November 2023

해운의 미래를 바라보는 교류의 장

매년 11월이면 해운업계의 시황과 전망을 나누는
KOBC Maritime Conference가 열린다.

거센 파도처럼 출렁이는 글로벌 해운시장 환경에서
시황을 살피고 이끌어 낸 메시지를 공유하는
해운업 관계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킹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만남은
해운-해양산업이 헤쳐갈 여정에 표지가 되어줄 것이다.

해운시황·해양금융 소통의 장을 열다

KOBC Maritime Conference

오는 11월 1일, 국내 해운시황·해양금융 업계 최대 행사로 손꼽히는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올해 제6회를 맞은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는 선박금융 및 해운시황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깊이 있는 전망 분석과 고품질 정보를 나누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의 초석이 되어준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에게는 급변하는 세계 시황과 규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다. 올해 개최될 행사를 미리 살펴보고 역대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를 돌아보자.



사전예약 바로가기



마리티타임 컨퍼런스(Maritime Conference)란?

매년 해운시황과 해양금융의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해 산업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향후 시황을 전망하는 토론의 장

개최 배경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의 전신은 해운거래정보센터가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국제세미나(KOMAC; Korea Maritime Conference)'다.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센터의 인지도 상승과 만족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2018년 공사 출범 후 연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국내외 패널리스트와 인적 교류 및 신뢰 구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해운 관련 원천데이터를 확보하는 채널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미리보기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11시~
 장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린머니

구 분		시 간
개막식	개 회 사	11:00 - 11:05
	축 사	11:05 - 11:20
	기 조 연 설	11:20 - 11:30
오 찬		11:40 - 13:00
컨퍼런스	금 융 세 셴	13:00 - 14:15
	시 황 세 셴 I	14:15 - 16:00
	시 황 세 셴 II	16:00 - 17:20
	폐 회	17:30 - 18:00
패널 간담회		18:00 - 19:00

올해 컨퍼런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세계 유수의 연사 라인업

금융세션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 동향 Mr. Abhishek Pandey, SC Bank		
시황세션 I	해운산업 현황과 전망 이석용(한국해양진흥공사)	건화물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s. Louisa Follis, Clarksons	유조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r. Oliver Ge, McQuilling
시황세션 II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r. Jan Tiedmann, Alphaliner	선박매매 시장 동향 및 전망 Mr. Tom Evans, VesselsValue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세에 접어든 현재에도 다양하게 작용하는 경제 요인으로 국내외 해운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매년 개최해온 컨퍼런스는 해운업계 관련자들의 상호 교류 현장이자 미래전략 창출 기회가 된다. 이어지는 위기와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해운업계에서 KOBK 마리티타임 컨퍼런스가 도움의 발판이 되어 해운·금융시장의 밝은 미래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함께 눈여겨볼 행사, 부산해양금융위크(BMFW) 2023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11월 2일(목)

기관들이 개별로 개최하던 해양금융 관련 행사를 2021년부터 부산해양금융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로 통합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해양금융 산업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부산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개막식(10.31)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 특별강연,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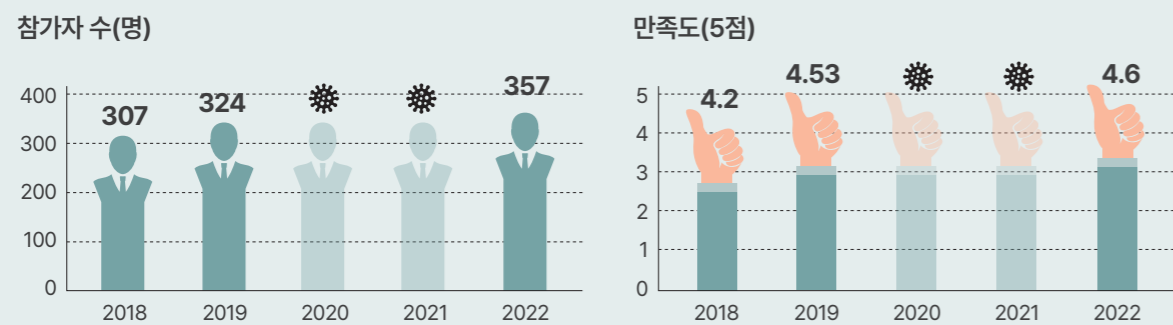
부산해양금융컨벤션(10.31)

'대전환의 시대,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로 금융감독원이 주관

한국선박금융포럼(11.2)

글로벌 선박업계의 동향과 선박금융의 미래에 대해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포럼으로 마린머니가 주관

한눈에 보는 컨퍼런스 개최 성과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 진행

역대 KOBK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모아보기

2018년

제1회 (일시) 2018년 11월 8일 (장소)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



공사 설립 이후 첫 마리티타임 컨퍼런스로 기존 명칭인 '국제세미나(KOMAC)'에서 'KOBK 국제컨퍼런스'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공사 홍보 및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되었으며 1부(글로벌조선, 선박금융, 신조-중고선), 2부(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로 세션을 구분하여 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제하였다. 패널간담회 진행 등으로 다양한 참여자 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그뎨 그랬지!

2018년 7월, 공사 설립 4개월 만에 개최하게 된 첫 번째 'KOBK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갖 설립된 공사에서 갖 입사한 사원이 준비한 국제 행사라 영 불안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는 흥행 성공! 신입사원의 숨은 내공을 드러낸 완벽한 준비로 기존 컨퍼런스 대비 두 배 넘는 참가자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2019년

제2회 (일시) 2019년 11월 5일 (장소)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미·중 무역 분쟁, 4차 산업혁명, IMO 환경규제 등 글로벌 변화를 분석, 해운시장 변동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수한 만족도와 높은 재참가 의사 외에도 금융업 종사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뎨 그랬지!

제2회 컨퍼런스의 개최지는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그랜드 호텔'이다. 행사 당일, 풍전등화 같았던 호텔을 지켜내고자 애쓰던 호텔 직원들의 우렁찬 함성과 각종 '폐업저지' 플래카드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담당자의 얼굴에는 피트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행사 시작까지 겨우 2시간 전! 고객의 소중한 행사를 위해 자진해서 함성을 멈추고, 깨끗하게 플래카드를 치운 뒤 어느 때와 같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던 호텔리어들, 여러분은 역시 프로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일시) 2020년 11월 4일 (장소)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온라인) 유튜브, 이벤터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여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급변하는 해운·물류 트렌드를 분석하고 해운업계 현황을 진단, 해운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마무리되었다. 국내 등록자가 약 400명에 육박하였으며 컨테이너선 발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마리티타임 컨퍼런스의 우수한 만족도와 참가자들의 높은 재참가 의사를 보여주었다.

그뎨 그랬지!

코로나도 우릴 막을 순 없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각종 국제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던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마리티타임 컨퍼런스를 온라인 전환하고 실황을 생중계하였다. 우리는 코로나19에도 이상 무!

2021년

제4회 (일시) 2021년 11월 3일 (장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온라인) 유튜브, 이벤터스



전년 대비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였으며 글로벌 해운산업 현황과 전망, 해운환경 규제 동향 등 다변화된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발제안을 공유하였다. 사전등록자가 전년 대비 34% 증가하고 재참가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답변의 비중이 급증하는 등 뚜렷한 만족도 개선 효과를 보였다.

2022년

제5회 (일시) 2022년 11월 1일 (장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3년 만의 현장 대면 행사이자 부산시, 금융감독원, 마린머니와 함께 '부산해양금융위크'로 공동 개최되었다. 해외 유수 해운시장 분석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였으며 선박금융과 해운시장 세션으로 나누어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2023년부터 발표되는 IMO의 EEXI, CII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그뎨 그랬지!

2년간의 온라인 개최를 끝내고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컨퍼런스! 아직은 코로나19의 공포가 채 가시기 전이라 성공적인 개최에 모두 반신반의했는데... 현장을 가득 채운 글로벌 참가자들을 바라보니, 2018년 첫 컨퍼런스와 같은 감동이 넘실!

SEA THE FUTURE



Tradewinds

Ukraine invasion drives global LNG trade volumes to new record, says EIA

우크라이나 침공이 LNG시장에 쏟아올린 공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LNG 무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하루 평균 517억 Bcf/d로 2021년에 비해 5% 증가한 수준이다.

LNG 수입 지역 중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LNG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2021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5개국의 LNG 수입량은 총 5.4Bcf/d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증가량의 8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EIA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액화설비 증설도 글로벌 LNG 교역량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21년 대비 16% 증가한 10.2Bcf/d로, 모든 LNG 수출국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로이드리스트

Methanol could account for a fifth of newbuildings by 2030

미래 선박연료, 장애물 있지만 메탄올 전망 밝아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은 최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며 메탄올 추진선은 2030년이 되면 신조발주량 중 20% 비종까지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선급은 선박 연료로서의 메탄올 기술은 실현 가능하고 지난 10년간 메탄올을 화물로 운송하며 연료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술 또한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메탄올 공급량은 메탄올 추진선 수주잔량에 비해 부족하므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메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탄올 공급 역량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메탄올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에서 공급되며 재생가능하지 않고, 연료유 대비 최대 2.5배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낮은 에너지 밀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선급 측은 메탄올 연료는 해양 산업의 탈탄소화 비전 하에 다중 연료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Platts

Demand for Russian coal drops amid vanishing price advantage

러시아산 석탄, 경쟁국 등장에 수출 감소 중

S&P Global은 자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러시아산 석탄의 매력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러시아산 석탄은 아시아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면서 EU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억 9,260만 톤, 2021년 대비 11.91% 증가한 수출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초 다른 주요 석탄 생산국, 특히 호주가 석탄 가격을 낮추면서 러시아산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올해 5~7월 러시아산 석탄 수출량은 4,9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러시아산 6,000kcal/kg NAR 석탄의 5~7월 평균 가격은 104.81달러/톤, 동기간의 호주산 석탄 평균 가격은 97.75달러/톤으로 러시아산 석탄은 동기간 가격 열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 소식통은 러시아 석탄 수출은 구매자들이 더 저렴한 대체재로 관심을 돌리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낮은 운임 비용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탄 대부분을 계속 비축할 수 있지만 인도와 같이 석탄 생산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리스트

Congestion and transit delays worsen for drought-hit Panama Canal

파나마 운하, 가뭄 지속에 벌크선 체선 심화

로이드리스트는 파나마 운하가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벌크선 대기 시간이 20일 이상으로 길어지고 일일 예약 슬롯 제한으로 체선이 심화되었다고 보도했다.

파나마 운하 당국은 7월 말부터 하루 36회였던 통항 횟수를 32회로 제한한 가운데, 로이드리스트 측은 운하당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최대 흘수를 44피트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6일 기준 대서양, 태평양 수역에 정박 중이거나 운하를 통과 중인 5,000dwt 이상의 선박은 총 216척으로 7월 초 165척 대비 크게 증가했다.

Braemar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일일 예약 슬롯은 평소 23척에서 14척으로 감소했으며 통항비 상승으로 인해 컨테이너선, 가스선이 대부분의 슬롯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박 중, 운하를 통과하는, 혹은 운하 통과를 기다리는 벌크선은 7월 말 59척 대비 80척으로 증가했다고 Braemar 측은 말했다.

화주들의 얘기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통항 제한이 화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가뭄이 지속되면 화주들의 결정은 파나마 운하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리스트

Carriers urged to cut more capacity ahead of China's October Golden Week

정기선사, 중국 국경절 대비해 선박량 감축 압박 받아

정기선사들은 다가오는 10월 중국 황금 연휴 기간 동안의 비수기를 견디기 위해 추가 임시 결항을 촉구받고 있다고 로이드리스트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동서항로 4곳에서 예정된 임시 결항 횟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선박량 감축 수준에 맞춘다면 정기선사들은 아시아-미 서안에서 13번, 아시아-미 동안에서 11번, 아시아-북유럽에서 10번, 아시아-지중해에서 7번의 항해를 추가로 임시 결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SBC 글로벌 리서치 측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성수기 낙관론과 선박 과잉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임은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수입업자들은 소매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여 재입고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분석 회사 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 측 또한 미국 도매업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편이며, 매출 감소로 인해 재고 소진 또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로이드리스트

Life returns to ship recycling markets

선박 해체시장 활동성 소폭 회복

현재까지 보았을 때 올해 선박 해체량은 지난 15년 중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로이드리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에 해체를 위한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의 매매가 증가하면서 해체시장의 활동성이 소폭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브로커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컨테이너선 4척과 벌크선 3척이 해체용으로 매매되었다고 전해졌다.

인도의 해체 시장에서는 올해 4분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현금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폐선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선박 구매업체 GMS 측이 말했다.

GMS 측에 따르면 현재 폐선 관련 선박 거래를 주도하는 곳은 인도의 현금 구매자들이며, 정치 및 경제적 문제로 선박 해체 사업이 거의 중단될 뻔한 파키스탄에서도 선박 해체업체들이 약 1년 만에 다시 입찰에 나서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말 낮은 오퍼가에도 어떠한 선박 해체업체들도 입찰을 나서지 않으며 최근 한 주간 저조한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MS 측은 최근 선박 해체 시장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가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진공 신입 인턴을 소개합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진흥에 힘을 보태는 꿈을 품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입사하게 된 신입 인턴 16인을 소개합니다. 인턴 생활 1개월 차,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공통질문

1.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2. 인턴 지원 계기
3. 취미와 특기
4. 인턴 기간 최종 목표
5. 1개월차 인턴의 소감 한마디!



감사실
박우진 인턴

1. "나는 감우진" 인턴 동기 중 동명이인이 있어 '감사실+우진'으로 불리고 있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 인턴 경험과 현직자들의 조언을 얻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3. 영화감상. 옛날 영화를 좋아한다. 클래식, 러브레터, 타이타닉 등.
4. 역량 기르기. 자격증 취득. 어학점수 향상. 최종 목표는 입사!
5. 걱정이 조금 있었지만,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새겨 성장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SG경영실 홍보팀
박우진 인턴

1. "나는 흥우진" 인턴 동기 중 동명이인이 있어 '홍보실+우진'으로 불리고 있다.
2. 해운, 항만 분야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 선박금융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해양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3. 축구. 포지션은 골키퍼. 평소와 달리 운동할 때는 승부욕이 강함.
4. 내년 상반기 취업 성공. 그중에서도 한국해양진흥공사 입사!
5. ESG 경영실 모든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즐거운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불평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크준법실 리스크준법팀
민경영 인턴

1. "난 경제학도"
2. 해양금융업이라는 규모가 크고 성격이 특수한 업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3.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즐겁다.
4. 내부통제와 신용평가 자료에 관한 실무 노하우를 배우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 쌓기.
5. 생소한 단어와 어려운 내부자료를 접하면서 헛갈리는 부분도 많지만,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즐겁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리스크준법실 리스크준법팀
변재원 인턴

1. "마이페이스" 특정할 수 없는, 좀처럼 견잡을 수 없는 성격이라서.
2. 해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의 사업추진목표가 좋아서.
3. 루어낚시와 관상어 사육. 유치원생 시절, 아버지를 따라간 바다낚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즐기는 인생취미.
4. 틈틈이 공부해서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따기.
5. 걱정했지만, 친절한 선배님들 덕분에 다행히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취미 코드가 비슷한 리스크준법실 김현우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크준법실 리스크준법팀
서현지 인턴

1. "해피스마일" 하루에 30분은 일부러 미소 지으며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2. 국적선사들을 위해 일하는 공사에 흥미가 생겨서.
3. 발라드 노래 부르며 기분전환. 주로 남자 가수의 발라드 선호.
4. 신용분석사 자격증 취득하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업신용평가제도 배우기. 해운산업의 전망을 배우며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입사하기!
5.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도전해나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노력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후배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석지현 인턴

1. "튼튼한 우산" 힘든 상황이 생겨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한다. 주변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한다.
2. 학부 시절 배웠던 지식을 실무로 경험할 수 있고, 마린시티가 근무지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와서.
3. SF영화감상. 일상에서 얻기 힘든 지식을 배울 수 있다.
4. 기억에 남는 사원 되기! 금융지식 최대한 채우기.
5. 한 달 동안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따스하게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사총무부 인사팀
한미선 인턴

1. "끝없는 도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가 않아서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2. 이전 인턴 활동에서 동기 인턴들이 강력 추천했기 때문에.
3. 음악감상, 힐링 취미로 나의 취향을 알아가고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좋다.
4. 적금과 저축으로 돈 모으기.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 정규직 취업!
5. 순조롭게 인턴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의 선배님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다행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을 보고 롤모델로 삼아 주어진 자리에 만족감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업전략부 사업전략팀
윤현영 인턴

1. "아메리카노" 카페의 기본메뉴이자 모든 커피에 들어가는 샷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음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환경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해진공의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3. 산책, 산책하며 배달 어플에 없는 맛집 발견하기.
4. 해진공의 비전과 경영목표, 추진 사업을 파악하기.
5. 자기소개에 썼던 다짐처럼 귀를 열고 잘 듣는 인턴사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총무부 총무복지팀
남지희 인턴

1. "잔잔한 바람"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선사하며 잔잔하게 흐르는 바람처럼 타인에게 반가운 존재,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2. 탄소중립시대,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다방면 경험을 쌓고 싶어서.
3. 걷기. 잔걱정과 생각을 비워내는 과정이 좋다.
4.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협력'과 '협업'을 이해하고 배우기.
5. 많은 것들을 배우며 행복하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소한 업무라도 책임감 있게 해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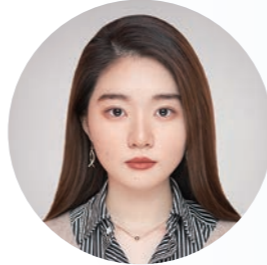
사업전략부 사업심사관리팀
우지영 인턴

1. "열정 한가득" 무엇이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2. 일반적인 금융과 달리 생소한 선박금융에 대해 알고 싶고, 선박금융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금융의 이해를 높이고 싶어서.
3. 음악 들으며 산책하기. 평소 걱정과 생각이 많아,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된다.
4. 선박금융 지식 많이 쌓기. 일 잘하는 인턴 되기!
5. 인턴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일하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인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정규직으로 꼭 입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부 재무팀
고홍기 인턴

1. "해진공린이(해진공+어린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앞으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2.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업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관심이 생겨서.
3. 구기종목 스포츠면 대부분 OK! 축구동호회와 풋살동아리 활동 중.
4.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처음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인턴 기간 잘 마무리하기.
5. 공사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금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은 기간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금융1부 컨테이너금융팀
박가현 인턴

1. "에너지이저" 좋아하는 일이나 목표가 생기면 꼭 이뤄야 하고, 지지치 않고 주변 사람까지 함께 챙기는 성격이라서.
2. 내가 좋아하는 해양과 금융의 조합! 해양금융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3. 스도쿠. 상념이 많거나 시간이 가지 않을 때 추천.
4. 경험치와 능력을 최대한 높여 해진공에 입사해 선배님들께 은혜 갚기!
5. 공사가 해운업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느꼈고, 선배님들의 열정을 본받고 싶습니다. 열린 성장해서 '해진공' 선박에 승선하여, 선배님들과 해운산업 리더를 향해 항해하는 크루가 되고 싶어요.



재무회계부 회계팀
안혜진 인턴

1. "회계해지니" 해진공과 비슷한 발음의 이름을 이용해서 회계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
2. 대학 선배님의 특강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알게 되어서.
3. 조용한 노래를 들으며 혼자 산책하기.
4. 한국해양진흥공사 입사!!!
5.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알아갈 수 있어 재미있고, 같은 부서 선배님들 모두 정말 친절하셔서 좋습니다. 이번 인턴 생활을 통해 많은 업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금융2부 중기상생금융팀
김재민 인턴

1. "두 개의 심장" 하나의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고, 또 다른 심장은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할 때 쓰기 때문에.
2.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여러 업무를 배워보고 싶어서.
3. 취미는 다양한 운동 즐기기. 특기는 될 때까지 한 우물 파기.
4. 내적인 성장 이루기. 자격증 취득하기.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들에 관해 더 알아가기.
5. 다들 잘 챙겨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턴분들과도 잘 맞아서 만족합니다. 멋진 해진공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부 사업전략팀
신현덕 인턴

1. "돼지저금통" 하루 하나씩 동전을 넣는 것처럼 하루하루 꾸준히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돼지저금통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다.
2.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양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기관의 업무에 관심이 생겨서.
3. 여행과 운동, 그리고 운동경기 관람.
4.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 진로를 생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
5. 인턴 생활 1개월 차, 조직의 업무와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쌓으며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해진공 선배님들 건물주가 되실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해양금융2부 중기상생금융팀
곽대호 인턴

1. "달려 갈게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금융 관련 직무경험을 쌓고 금융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3. 고양이와 놀기. 반려묘와 놀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하기.
4. 인턴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을 만큼, 선배님들과 동기분들과 잘 지내며 좋은 추억 쌓기.
5. 다른 인턴들에 비해 늦게 들어와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요, 워킹맘 with 해진공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일상은 어떨까. 공감 백배,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해진공 워킹맘의 일상 공감 수다. 뜻밖의 꿀팁을 얻을지도 모르니, 예비 워킹맘, 워킹대디도 주목!



한세희 과장

안녕하세요, 워킹맘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윤옥 차장 친환경선박 지원, 국가필수선대, 인증제도, 교육사업 등 정책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부 양윤옥 차장입니다. 제 아이는 만 5세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조현희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금융2부에서 중견선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개월 선우 엄마, 조현희 과장입니다.

한세희 과장 안녕하세요. 정책지원부에서 친환경 설비 개량 지원사업과 함께, 곧 29개월을 앞둔 최고 장난꾸러기 아들 맘을 담당하고 있는 한세희 과장입니다.

김효린 사원 인사총무부에서 본부장님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김효린 사원입니다. 25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재이 사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정재이 사원입니다. 공사에서는 예산운영 지원업무를, 퇴근 후에는 집으로 출근해 26개월 아들 육아를 맡고 있습니다.

워킹맘의 출퇴근 모습은 어떤가요?

양윤옥 차장 집이 멀어서 출근 시간이 조금 이른 편인데요. 아이 기상 시간도 같이 빨라져서 아침마다 깨워서 차까지 가는 데 전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항상 좀 미안하죠.

조현희 과장 아이 등·하원을 남편이 담당하고 있어서 출퇴근 동안은 오롯이 혼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예요.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안부가 궁금한 친구나 가족들과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제겐 출퇴근 길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세희 과장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서울-부산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도보 15분의 짧은 출퇴근길에 잠시나마 힐링하기도 하고, 해진공 직원모드와 엄마모드로 변신(?)을 준비한답니다.

김효린 사원 아침마다 정말 전쟁통이에요. 남편 깨우고, 아이 등원 준비에 제 출근 준비까지! 그리고 나서, 출근길 버스를 타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 되죠.

정재이 사원 아침잠이 없는 아이가 저를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요. 등원길에 뽀로로 음악을 듣고요, 아이 보내고 나서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습니다. '유일하게 혼자일 수 있는' 15분의 출근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를 픽업해서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하고 하원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곧바로 육아 출근인 거죠.

워킹맘이기에 느낄 수 있는 순간들, 뜻밖의 장점이 있다면?

양윤옥 차장 최근 공사의 TV 광고를 보고 "엄마 회사 광고야" 말해줬더니, "우와, 배 크다. 엄마 회사, 배 만드는 회사구나." 아이가 엄지 척! 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엄마 회사는 배 만드는 게 아니라, 해운기업의 유동성..... 크면 알려줄게.



조현희 과장 월요병이 없어졌다? (웃음) 주말 동안 아이와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나면 정말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커피도 마시고 동료들과 잠시 수다도 떨 수 있으니까, 때때로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김효린 사원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아이가 “엄마, 뿌로로주스 사와”, “아이스크림 사와” 말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귀여운 멘트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맛이 있달까요.

한세희 과장 도어락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우당탕 뛰어나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면서 문 열어줄 때, “엄마, 회사 일하고 오느라 허리가 아프니 두드려줘~” 하면 작은 손으로 안마 하면서 서투게 “엄마, 회사에서 일 조금만 하세요”하는 아이를 볼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뿌듯함을 느끼죠.

‘똥밖의’ 장점은 회사에서 마시는 아이스라테가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한 시간을 꼭 채워 먹는 점심이 얼마나 큰 호사인지, 합법적(?) 일탈을 누릴 수 있는 회식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있겠네요. (웃음)

정재이 사원 똥밖의 장점이라면, 시간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웃음) 저녁에 아이가 일찍 잠들거나 주말 아침에 아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그 작은 여유가 너무 달콤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조그만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일터와 가정을 오가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어느 날 훌쩍 자란 아이 모습이 눈에 띌 때면 기특함이 몰려옵니다.



정재이 사원

쉽지 않은 육아, 큰 도움이 된 해진공의 근무제도가 있다면?

조현희 과장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휴가, 개인 연차 등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부장님, 팀장님, 동료들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았다고 느낍니다.

한세희 과장 개인적으로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2시간 단축근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정말 든든한 제도죠.

제도가 있어도, 회사 분위기와 구성원의 배려가 없다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그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공사가 바로 우리 해진공입니다!

조현희 과장 맞습니다. 우리 공사는 실제로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로 가장 높습니다.

정재이 사원 우리 공사만큼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까지 잘 조성된 회사는 처음입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관리자이신 팀장님, 부장님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을 편견 없이 지지해주십니다. 배려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다니고 있어요.

김효린 사원 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꼭 누군가의 업무지원이 필요한데요, 4시가 되면 퇴근하라고 동료분들이 먼저 등을 떠밀어주세요. 항상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합니다.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잡혀있음을 몸소 느껴요. 같이 육아하는 남편도 우리 공사의 문화에 되게 감사해하죠.

양윤옥 차장 맞아요. 아무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다른 직원들이 챙겨줘야 할 업무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다들 워킹맘, 워킹대디들을 이해해줘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조현희 과장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위해 행기는 것은?

양윤옥 차장 저에게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챙기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조현희 과장 바로 떠오르는 게 없어서, 조금 슬프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남편과 맥주 마시면서 OTT로 영화 보는 것이 낙이에요. 아, 그리고 옛날엔 회식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제 회식날은 공식적(?)으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이다 보니 회식도 꼭 참석합니다.

정재이 사원 넷플릭스를 보거나, ‘조용히’ 맥주 마시는 일이에요! 최근엔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했어요, 아이 없어요! 육아 퇴근 후에 같은 입장의 엄마들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

한세희 과장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영양제 챙겨 먹기, 짬짬이 화강스(화장실에서 쉬는 것)와 설강스(설거지를 하면서 쉬는 것)를 즐기는 것? (웃음)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운동을 하고 싶는데,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육아보다는 웬지 게으름 때문인 것 같은데... (웃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김효린 사원 제가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소소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해서 오전에 잠시 짬이 나면 먹고 싶었던 간식을 챙겨서 즐거운 간식타임을 꼭 보냅니다.



양윤옥 차장(가장 오른쪽)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윤옥 차장 지치지 않는 체력이 아닐까요.

김효린 사원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부족해지는 것을 느껴요.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게 되고, 가장 필요한 건 건강과 체력인 것 같아요!

한세희 과장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 육아하고.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김효린 사원

조현희 과장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육아할 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같이 양육하는 배우자와 서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재이 사원 아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돌봄 연차를 제가 가장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아이가 아플 때거든요.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돌봄휴가가 정말 절실했어요. 돌봄제도들을 국가 차원에서 탄탄하게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양윤옥 차장 아이를 통해 세상 사는 데 또 다른 눈을 가질 수 있고, 아이를 통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같이 힘내요~ 파이팅!

조현희 과장 아이가 언제 아프서 꼭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를 써야 하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육아할 때 분명히 발생거든요. 그럴 때마다 배려해준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재이 사원 네, 저도 항상 많은 배려해주는 윤정현 기획예산팀장님 이하 기획예산팀 모든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 존경합니다.

김효린 사원 오늘 다른 분들 말씀을 듣는데, 하나하나 공감했어요. 배려해주는 동료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워킹맘들, 워킹대디분들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져요.

한세희 과장 공동 육아를 하게 되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형제가 없는 아이에게도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 수 있어 좋고, 혼자 육아하는 것보다 시간도 빨리 가더라고요. 주말에 혼자 육아하기 심심하고 힘든 워킹맘들, 워킹대디들 모두 연락 주세요~ 함께합시다!

그리고 예비 워킹맘, 워킹대디들! 아이를 낳아보니 힘든 점도 많지만, 아이가 없었을 때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복과 감동이 있습니다. 해진공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워킹맘, 워킹대디의 세계로 오시는 것, 추천합니다! welcome!

바다로 세계를 누비는 미래 세대의 롤모델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조소현 협회장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고향인 충남 태안을 떠나 낯선 부산으로 오게 된 계기는 미지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성 항해사로서 배에 올라, 끈질긴 근성과 단단한 신념으로 바다 위에서 7년을 보냈다. 하선한 이후 1등 항해사 경력을 살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IMO(국제해사기구) 관련 국제협력과 교육 업무를 도맡으며 여성 이슈를 다뤘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여성해사인협회(WIMA) 한국지부 협회장을 겸하고 있다. 여성 불모지였던 해운업계에서 여성 항해사의 길을 낸 조소현 교수를 만나보았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시절, 친구를 통해 해양대를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진취적인 길을 걷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해양대에 도전했다. 해양, 선박산업의 이해 없이 시작한 학교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섬(영도)이라는 낯선 환경, 남자가 대부분인 학교의 기숙사 생활, 훈련을 받고 단체생활의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했고 벗어나면 심한 제재가 있었다. '아웃사이다'로 방황하던 시절을 지나 3학년이 되었고 한진해운 실습선을 타면서 선원으로 살겠다는 동기가 생겼다. 학교에서 배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다.

졸업 후 한진해운 계열사인 거양해운에 입사했다. 선원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성별은 넘어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선박직 종사자들에게 여성은 아직 낯선 존재이며, 미신적인 불안과 불편, 거부 반응이 있었다. 당시에는 여성 선원이 많지 않아 롤모델로 삼을 케이스가 없었고 회사도 여성 선원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부재했다.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내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왔다. 여성이 일함으로서 승진한 선례가 없다 보니, 아무도 부담을 준 적은 없지만 이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선구자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이때부터 해외 상황은 어떤지, 국제기구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연구하는지 남다른 고민을 했다. 그리고 해양산업에서 꾸준히 종사하는 동시에 여성 의제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해양산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7년이라는 해상 경력을 가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들어갔고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IMO(국제해사기구) 회의에 참관하게 되었다. 그중 TC(기술협력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가는 공동체를 위해 선원 양성 정책에 여성 선원을 고려할 것'과 '해운 선사들이 여성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의제를 우리나라가 IMO에 제출하는데 자문으로 참여하였다. 2019년 9월부터 한국해양대학교에 재직하게 되었으며, WIMA Korea를 설립하기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하는 동시에 IMO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바다를 일터 삼은 업종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선박의 세계가 거칠기도 했지만, 교대로 야간 당직을 서는 등 육체적인 업무도 고됐다. 내 업무를 누군가 대신 할 수 없을뿐더러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낸다는 면에서 학생 때와 다른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대학 시절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여겼던 내가 3항사, 2항사를 거쳐 1항사가 되기까지, 독립된 나 자신으로서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7년간 배를 탈 수 있었던 의지의 끈이 되었다.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에 3등 기관사로 승선하셨던 여성 교수님이 계신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에 종사하는 여성 대부분이 승선하는 동안 아이덴티티가 바뀐다고 한다. 남자와 섞여 보니 제스처나 태도, 성향이 유사해지면 서 남성에게 지지 않는 강함을 어필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후배들에게 강요가 될까 조심스럽지만, 나 또한 그랬다. 되도록 남자와 비슷하게 분위기를 맞추고 의도적으로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름이 묻어 지저분한 옷도 신경 쓰지 않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거친 말투를 쓰는 등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지금의 나를 만난 사람들은 그때의 나를 사뭇 다른 이미지로 여긴다. 어쩌면 의식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나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런 방법이 올바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버티지 못했을 때 다른 여성에게 항하는 화살이 두렵기도 했다. 당시 우리 배에서 내가 유일한 여자 항해사였다. 다른 선박 혹은 육상 간 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면 목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사적인 대화로 유도하는 일도 빈번했다. 여성이 승선하는 것은 2항사, 1항사로 갈수록 더욱 흔치 않은 일이다. 내가 해내지 못하면 '여자들은 금방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의 잣대가 된다. 현재도 많은 여성 해기사들이 이런 부분을 의식한다고 생각한다.

선사에 직접 연락해서
“여자도 선원으로 뽑습니까?”라고
굉장히 많이 여쭙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직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Q. 항해사 생활 중, 인정받을 수 있었던 나만의 비결이 있다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끝까지 성실하고자 노력했다. 배를 오레 타면서도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긴장했고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나의 업무 스타일이었다. 내가 배를 타던 시절에는 6개월, 길면 10개월 승선하고 휴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나는 휴가 없이 18개월이란 시간을 배에서 보냈다. 선원법에 저촉되지만 않았으면 24개월을 채우고 싶었다.

여학생들은 실습도, 취업도 어렵고 막상 배에 올라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늦게 탔지만, 가장 마지막에 내린다’는 각오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것이 배를 오래 탈 수 있던 원동력이자 신념이었던 것 같다.

Q. 항해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배를 타면서 여성 의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되면 더 깊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인이 되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선 후 연수원에 입사하면서 IMO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함께 맡은 일이 교육 업무였다. 선화 운송, 화물 취급, 여객선, 항해사 직무 등으로 내 경험과 항해사 경력을 살려 교육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몰입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 좋은 기회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해양대를 졸업하고 여자 교수가 된 첫 사례다. 이 사실이 교육에 임하는 동기가 되는 것 같다.

Q. WIMA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IMO는 각 대륙과 나라별로 WIMA(Women In Maritime Association)라는 여성협회를 만들어 정기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WIMA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 많은 여성이 교육 기회를 얻고 성장하며, 해사 분야 경력을 만들고 지속할 수 있게 돕는다. 실질적인 사업은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이다. 한국은 2022년에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사단법인으로 정식 승인받으면서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반기에는 학회에서 여성 이슈 관련 의제 발표, 워크샵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5월 18일은 세계 여성 해사인의 날로 IMO에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 행사를 진행하는데, 직접 참가가 어려운 대신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에 속한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며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국내외로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Q. 해사 분야 멘토로서 꿈꾸는 미래 해사산업의 방향은

어떤 노하우로 경력을 유지했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해사 관련 고위직에 진출해있는 여성 관리자가 매우 부족하다. 이럴 경우, 여성 정책을 다룰 때 아쉬운 의사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다. 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 포용적인 시각으로, 충분한 소통으로 접근하면 좋을 텐데, 여성을 위한 정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성 고용이 풍부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승선하는 여성들에게는 부담이 따른다. 드문 기회를 얻은 만큼 배를 잘 타야 하고, 잘 타지 못하면 다음 여성 후배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리라는 부담. 개인적인 사유로 하선하게 되면 ‘이래서 여학생은 뽑지 않는다’라는 선사의 태도 등. 아직 소수인 여성들이 안고 있는 짐이자 해운산업이 탈피해야 할 숙제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력을 갖추는 데 성별의 차이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해운산업에서 선원 인력이 부족한데, 올바른 인식 성장과 더불어 여성 선원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해운강국인 만큼 선원을 대하는 의식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여성 해사인들이 해양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꾸준히 경력을 만들고 실력을
발휘해 우리 해양산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협회의 기조입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 해기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박의 특수한 환경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준다. 항해 중 선박 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폐쇄적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를 업무 범위로 삼게 된다. 나의 근무 환경도 한국을 벗어나 전 세계가 되는 것이다. 각각의 항구에 들어가면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확장된다. 언어를 몰라도 외국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다. 어떤 환경이든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긴다. 화물이 오가는 것을 체감하며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우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 풍부한 경험이 다시 나를 성장시킨다. 선박직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3학년 실습 기회가 오면 꼭 선사 쪽으로 가보라고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한다. 간접적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면 취업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여성 해사인이 아직도 소수인 만큼, 배를 탔다는 자부심을 느낄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또 그 시기에 배를 타지 않으면 다시 배로 돌아가기 어려우니 꼭 한번 승선해보길 바란다.



바다를 살리는 길,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해운 시대가 개막했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운항 기술과 에너지가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물자가 오가는 바닷길 역시 탈탄소 흐름에 합류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중립기술이 곧 글로벌 해운경쟁력이 된 지금, 차세대 해운 솔루션으로 떠오른 녹색해운항로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동력원, 녹색해운항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로의 모든 부분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항로를 말한다. 녹색해운항로의 선박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로 운항하며, 항만은 전기화 및 저탄소·무탄소 연료 병커링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된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2022 NDC 종합 보고서(NDC Synthesis Report)’¹⁾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웃돌 것으로 분석하며,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더라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보다 10.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해운업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 해운 온실가스를 계속 방치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²⁾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연료 전환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모든 산업이 탈탄소를 목표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시점, 해운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른 해결책이 바로 녹색해운항로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탄소중립 경쟁

녹색해운항로는 다양한 가치사슬로 엮인 해양-해운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항만의 경우, 최대 화주국인 미국과 선박금융 강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경쟁하는 형세다. 녹색해운항로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면 연료 생산부터 운송, 선박까지 탈탄소를 실현하는 만큼 해운업계 내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³⁾에서 2026년까지 참여국 간 최소 6개 이상의 녹색항로를 도입하겠다는 ‘클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 주요 해운물류 선진국인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22개국이 서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선도그룹연합(First Movers Coalition)을 출범해 ‘그린 시핑 챌린지(Green Shipping Challenge)’ 캠페인을

시작했다. 항만(도시)연대인 ‘C40’가 항만-선사-화주 간 협력을 통해 녹색해운항로를 개발하며,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 비중을 전 세계 원양 선대의 5%로 높이고 화물의 10%를 무탄소 선박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주도권 경쟁으로 2022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항-중국 상하이항이, 2022년 8월에는 싱가포르항-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각각 녹색해운항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그린 시핑 챌린지에 참여하며 전 세계 3번째 녹색항로 개척에 나섰다. 2022년 11월 7일 COP27에서 공식 발표한 부산항-미국 북서부 타코마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 수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닷길을 이용한 수출 무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그린 시핑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했다. 한국과 미국은 주요 항만 이용 가능성 연구에 착수하고, 다른 참여국과 함께 무탄소 연료의 생산, 공급 등 병커링 시설 인프라 설립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차세대 표준,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위하여

2023년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 각지의 항구를 녹색항로로 연결하고자 한다’라는 참여 의지를 드러내며, ‘올해 COP28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대 보유량은 세계 4위로 수출입 무역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오늘날 국제 해운에서 강조되는 탈탄소 솔루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친환경 선박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아시아 주요 해운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꼬집으며 국제 해운 파트너로서 녹색해운항로를 위한 기술 연구 및 인프라 개발을 한시바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녹색해운항로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 새로운 시장 규범을 만들어가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녹색성장시대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해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1)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종합 보고서
2) ‘Aviation and shipping emissions in focus’, European Environment Agency(유럽환경청)
3) 매년 각국 정부가 모여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의제로 논의하는데, 이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라고 한다. 따라서 ‘COP26’은 기후에 관한 제26차 유엔 회의라는 뜻이며,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렸다.

감성 충만한 가을 속을 거닐다 부산 남구

여름엔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실내에만 머물렀다면, 가을을 맞아 밖으로 나가 보자. 실제로 가을 햇볕은 봄별보다 약하며 자외선 수치도 더 낮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따스한 햇볕, 그 사이를 가르는 시원한 바람. 걷기 참 좋은 계절, 가을. 이 계절의 감성에 흠뻑 빠지게 해줄 부산의 산책 코스를 추천한다.

이미지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코스 1 | 파도를 벗삼아 가을 트레킹

이기대 수변공원

이기대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다. 하나는 기생의 무덤 두 개가 있어 이기대로 불린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시기 왜군의 축하연에서 의로운 기녀가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투신하여 함께 죽은 곳으로 '의기대'가 변형되었다는 설이다. 1993년 시민들에 개방되기 전까지는 군사작전지역으로 통제되었던 곳이었다. 1999년 10월 바닷가 바위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한 특색 있는 지역이다.

길이 4.7km에 달하는 이기대 수변공원은 광활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길로 안성맞춤이다. 눈앞으로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에 개운함을 느낄 찰나, 깎아지른 절벽의 독특한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기대 절벽은 약 8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공룡이 살던 먼 과거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화산암과 퇴적암 지층들이 파도로 깎여 만들어진 자연의 놀라운 선물이다.

오륙도 해맞이공원 & 스카이워크

셀물과 밀물 때 따라 섬이 5개 혹은 6개로 보인다고 해서 오륙도로 불린다. 오륙도는 이기대 지질명소와 같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만 년 전까지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거센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섬이 되었다. 오륙도 역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기대와 함께 부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오륙도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기에 좋은 명소가 바로 해맞이공원이다. 해맞이공원에 오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오륙도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해맞이공원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스카이워크에도 방문해보자. 스카이워크는 35m 높이의 해안 절벽에 철제빔을 세우고 그 위에 유리판을 U자 형태로 이어 만든 15m 길이의 돌출 유리다리다. 이름에 숨은 의미처럼 '하늘 위를 걷는' 아찔함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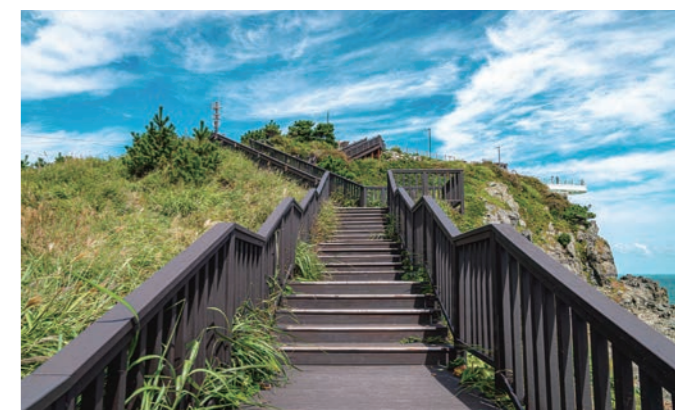
오륙도 스카이워크

개방시간 09:00~19:00(입장 마감 18:50)
눈, 비, 강풍 및 시설 개보수 시 개방 제한

Course.1



이기대 수변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 & 스카이워크

코스 2 | 역사와 자연 속을 걷다



부산박물관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체험학습으로 가 봤을 부산박물관. 1978년 개관한 부산박물관은 선사에서 근현대까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한 부산의 대표 종합박물관이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해운대구 청사포와 좌동, 중동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와 함께 부산의 구석기시대가 시작된다. 뽕석기와 간석기를 지나면, 어느덧 머릿속 어딘가 남아있던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슬며시 떠오를 것이다.

부산관으로 이동하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격동의 근현대시대 속의 부산이 시간을 멈춘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일목요연 박제되어 있다. 매일 일상을 보냈던 부산의 곳곳이 더욱 새롭게 실감날 것이다. 자녀와 함께 방문하면 좋을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전시도 시즌에 따라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 전 부산박물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고 가자.

관람시간 평일 및 일요일 09:00~18:00(입장 시간 09:00~17:00)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관람료 무료

Course.2

유엔기념공원

부산박물관에서 도보 7분을 걸으면 세계 유일 유엔기념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이 나온다. 한국전쟁 이듬해 1951년 1월,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유엔군에서 최초로 조성하였다. 1955년 11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기증하고 묘지를 성지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본래의 이름은 재한유엔기념묘지였으나,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1년 3월, 한국어 명칭을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하였다.

4만 평에 달하는 드넓은 공원은 계절의 모습을 여과 없이 선보인다. 80여 종류, 1만여 그루의 수목과 식물들이 부지를 가득 메우고, 사육 중인 오리 외에 계절 철새들이 머물다 간다. 전쟁이 아야간 평화와 자유를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찾은 역사를 다시 되새기며 가을 속을 거닐어보자. 참배의 뜻으로 설립된 곳이므로 끈이 없는 슬리퍼나 노출이 심한 복장, 운동복은 금지되며, 자전거나 전동기 출입과 흡연 및 취식, 음식물 반입 역시 금지다.

운영시간 10월~4월 09:00~17:00, 5월~9월 19:00~18:00, 연중무휴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에서 문화해설사 해설 예약 가능(20인 단체 방문객 대상)



대연수목전시원

유엔기념공원을 걷다 보면 어느새 대연수목전시원에 다다른다. 대연수목전시원은 유엔기념공원과 평화공원에 맞닿아 조성되어 있다. 1978년 양묘장으로 처음 설립되어 운영돼왔으나, 2002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단장하여 일반 시민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아열대 식물 체험관과 유리온실, 허브원, 침엽수림원, 오록도원, 낙엽교목원, 죽림원, 무궁화품종원 등 약 600종의 수목이 생태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65세 이상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일 20일 전후로 프로그램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4월부터 10월 사이, 하루 2번(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사전 신청을 통해 숲 해설가의 수목 해설을 들으며 유익하게 전시원을 관람할 수 있다.

코스 3 | 낮보다 더 빛나는 밤산책

우암동 도시숲

우암동 도심 한복판에 심표를 담은 작은 숲이 있다. 우암동 도시숲은 남구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이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국유림을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저 멀리 영도의 봉래산까지 내다보이는 멋진 야경으로 유명하다.

산책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도시숲 밤산책을 즐겨보자. 쉼터와 운동시설, 정자와 포토존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깊은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화려한 북항대교 조명과 별빛처럼 빛나는 도심 불빛들, 그리고 동향성당의 예수상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밤 풍경이 펼쳐진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야경 명소로 절로 카메라를 들게 만든다. 보름달 포토존에 들러 인생 사진 남기기는 필수코스다.

용호별빛공원

2019년 2월, 외국적 선박이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용호부두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남구는 소유주인 항만공사와의 협약 아래, 이곳을 용호별빛공원으로 조성하고 2021년 7월부터 시민에 개방하였다. 이제는 야경투어, 물놀이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이 찾는 남구 대표 친수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체험관을 개관하여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체험관 1층에는 용호동의 분개염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상시전시실과 용호부두 앞 심해를 탐험하는 '별빛바다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존이 있다. 2층 휴게공간에는 다양한 책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일몰 후, 점등되는 조명과 저멀리의 광안대교 불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기에 좋다.



Course.3

이용시간
용호별빛공원 09:00~22:00(연중무휴)
전시체험관 13:00~21:00(월·화요일 휴관)
경관 조명 일몰 시~22:00



추석에 과식했다면, 운동 욕구 샘솟는 영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로 마음이 푸근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에 몸도 든든하다. 추석 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짹 짹 차오른 뱃살을 이제 가볍게 할 때. 몸을 슬슬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영화들과 함께 오늘부터 '오운완'이다!



농구계의 믿을 수 없는 감동 실화

<리바운드>

2022 | 122분 | 한국



단 10초, 가장 빠른 질주를 위하여

<스프린터>

2023 | 87분 | 한국



집 없는 사람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드림>

2022 | 125분 | 한국



청춘의 중심에서 족구를 외치다

<족구왕>

2014 | 104분 | 한국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슈팅한 공이 골인하지 못하고 림 혹은 백보드에 맞고 튀어나오는 것을 말한다. 리바운드는 실패한 슛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실패 이후 이어지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경력 없는 신입코치와 한때 주목받았으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 길거리 농구만 하던 선수, 치명적인 부상으로 농구를 그만둔 선수, 만년 벤치로 출전 기록이 전무한 선수, 심지어 농구가 아닌 족구를 하던 선수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입학한 어린 선수까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에는 부족한 이들이 모여 팀을 이룬다. 오합지졸 최약체 팀이 기적을 일으키는 흔한 스토리는 2012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대회 당시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픽션이라면 편하다 싶겠지만, 결말로 달려갈수록 실화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극적인 스토리를 선보인다.

100미터 육상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같은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그들이지만, 출발선에 서기까지 각자가 달려온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 신기록을 세울 만큼 뛰어났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 한계를 느끼는 '현수'와 어떻게든 1등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정호', 그리고 육상부의 존폐 기로 속에서 뒷심을 발휘해보는 유망주 '준서'까지. 세 명의 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리는 모습은 단순한 단거리 달리기에 그치지 않는다. 꿈을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과 닮았다. 각자가 도달한 인생의 시점에 따라 달리기에 대한 욕망은 열망이 되기도, 미련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단 10초, 100미터 단거리의 승부가 나는 그 짧은 시간처럼 성취의 순간을 위해 진심으로 매진하는 것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영화 <드림>은 2010년 대한민국이 첫 출전한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불미스러운 사고로 징계를 받은 축구선수 '홍대'는 소속사의 권유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바로 홈리스 월드컵의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되어 팀을 이끄는 것. 여기에 홈리스 월드컵 준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으려는 PD '소민'이 합류해 대사를 정해주며 감동을 연출하려 들고, 선수들은 축구는커녕 운동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좌충우돌 속에서 훈련은 계속되고 홈리스 대표팀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간다. 인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둘 밝혀지지만, 영화는 구구절절 신파로 풀지않는 않는다.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골만이라도 넣는 것, 최선을 달리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이 영화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대사 티키타카가 의외의 재미를 더한다.

'족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야구, 축구, 농구와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족구 하는 식품영양학과 복학생 이야기다. 갓 전역한 복학생 홍만섭은 교내에 사라져버린 족구장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한다. 주변에서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족구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만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족구에 몰두한다. 족구에 진심인 만섭으로 인해 교내에는 때아닌 족구 붐이 일어나고, 학내 족구시합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캠퍼스를 배경으로 솔직하고 땀내 나는 청춘의 단편이 펼쳐지고, 여기에 B급 감성 특유의 유쾌함과 소소한 반전이 어우러진다. 배우 안재홍은 이 영화를 통해 얼굴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으며, 실감 나는 생활연기로 독립영화계의 송강호라는 극찬을 받았다.

<비타민 SEA>에 도착한 사연대방출

당신을 위한 월요일 퇴치 꿀팁

맛있는 음식으로 월요일 타파! 미식형

월요일 오전에 구내식당 차림표를 보며 점심 메뉴 고민하기!! 바쁜 월요일을 잠시 잊고 맛있는 정식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행복해집니다...!
<잔망루피 님>

소확행을 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기운은 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순간, 커피향을 맡으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일개미 님>

회사 커피머신에서 에스프레소 4샷을 추출한 데다 얼음만 섞어 마십니다. 거기에 달콤한 쿠키스 케이크 하나를 같이 섭취하며 아침을 깨웁니다.
<윤오우 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파두 님>

빙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주말에 시원한 빙수를 먹으며 힐링을 합니다. 주말마다 빙수맛집을 탐방하며 행복감을 느껴요.
<햇살 님>

주말을 미련 없이 알차게, 부지런 배짱이형

주말 동안 열심히 육아하면서, 월요일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워킹맘입니다. 월요일 퇴치 꿀팁만 아니라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질거예요... ^^
<박오빈 님>

비록 모기와 벌레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말 동안 시원한 바람과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캠핑을 즐깁니다. 이 기운으로 힘차게 한 주도 출발~
<캠핑러버 님>

월요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말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주말을 허무하게 보내면 월요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토요일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알차게 합니다.
<김오영 님>

주말 동안 맛집과 감성 카페 탐방으로 충분히 힐링하면, 월요일엔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어진 시간에 알차게 놀자구요!
<농농이 님>

나만의 루틴으로 월요일 완치, 일상힐링형

일요일엔 일찍 잠들고,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요. 출근해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와 과자 등 소소하지만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피곤한 월요일도 금방 날아간답니다.
<권오희 님>

저는 출근 전 고양이를 쓰담쓰담하며 고감하고, 퇴근 후 장난감으로 한바탕 놀아주며 월요일을 퇴치합니다! 고양이는 사랑 그 자체, 1인1묘 원주♥
<변미짱 님>

피곤하지만 월요일 퇴근 후 운동이 월요일 극복에 도움이 돼요. 마냥 누워 있다보면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지니까요. 월요일 운동으로 한 주를 알차게 시작해보요!
<셋별 님>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다들 어떤 주말을 보냈는지 와글와글 이야기하다 보면 월요일도 금세 가더라고요.
<미니언즈 님>

년 계획이 다 있구나, 파워계획형

월요일 극복을 위해 한 주간의 즐거운 일들을 일력에 기록합니다. 출근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있을 일정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오섭 님>

다가오는 주말에 알찬 계획을 세우면 열심히 일한 후의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아직 타보지 못한 백운호수 오리배를 가족들과 타보려고 합니다!
<리차드유 님>

MBTI 계획형(J)으로 주말을 계획하는 취미가 있어요. 맛집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주말 동안 실행에 옮기죠. 아젠 힘이 되지 않고 맛집을 다니는 꿀팁까지 보유했어요!
<치킨미니아 님>

나만의 방법으로 월요일 극복, 창의형

회사 건물이 무너지는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일요일 저녁, 마음이 어지러울 땐 일기를 써요. 내 생각을 차분히 쓰다 보면, 월요일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오정 님>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월요일엔 자체를 제껴버립니다. 월요일 연차를 사용 후, 정식을 여유롭게 먹으며 복구하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면 호기나 2배!
<월요일은 너무시러 님>

모 중학교 4년 차 교사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잠자리를 내어 수업 준비를 합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출근해서 수업까지 알차게 마치면 뿌듯한 월요일이 됩니다. 사실 아침에 아이들과 이력서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월요일이 퇴치되기도 해요. ^^
<진이 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안내 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프티콘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성함,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벤트 참여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알찬 연말을 만드는 송년 마무리 꿀팁"
성함(닉네임 가능)과 휴대폰번호, 나만의 꿀팁(공백 포함 150자 이내)을 사진과 함께 참여 이메일: kobcpr@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기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어느덧 끝자락, 아쉬운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는 사연은 다음호 <비타민 SEA>에 소개되며, 선정된 20분께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활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이모저모 해진공



청년세대 직원이 멘토가 되는 '리버스멘토링' 진행

6월 28일(수) 경영진과 청년세대 직원 간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KOBC 리버스멘토링 '처음처럼'(이하 리버스멘토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리버스멘토링은 주니어 직급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경영진 등 관리직급을 대상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청년직원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청년이사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세대 간, 직급 간 생각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간 업무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포식 개최

6월 28일(수) 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양수 사장, 김정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공동 대표 13명이 참석하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언 주요 내용은 부당한 업무지시 및 사적 용무 지시 금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시 적극 행동 등입니다. 공사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 2022년 '노사 공동 4대 근절 선포식'을 개최, '상호존중의 날'을 매월 정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로운 CI 발표

7월 5일(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공사 CI로고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이번 CI 변경은 선박금융 위주의 기존 사업에서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등 해양 인프라 전반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디자인은 영문 이니셜인 KOBC 알파벳을 뒤편으로 뒀을 때를 모티브로 배치하여 공사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 해운항만 물류기업과의 협력과 공존을 표현하였습니다. 공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CI 개발을 토대로, 거듭 발전해나갈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기념 행사 줄여 부산지역 취약계층 일상회복 지원나서

공사는 올해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대외행사를 축소하고, 7월 11일(화) 절약한 예산으로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해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성금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느린 학습아동 학습서비스 지원, 노년층 사회활동 맞춤 교육,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 부산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사가 함께 나누어 부산이 더욱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하반기에도 해양환경정화, 해양문화사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4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회의 개최

7월 25일(화)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김양수 공사 사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임직원들과 '24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차년도 및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사업 목표 논의를 통한 미래 전략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산업 동향 및 전망', '공사 경영목표 관리', '중장기 및 '24년 목표 수립', '사업 전략방향 논의' 등 크게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견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23년 혁신경영 선포식 개최

8월 3일(목) 사내 혁신문화 전파 및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2023년 혁신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자문위원 위촉, 공사 혁신 경과 및 추진계획 공유, 주요 혁신과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혁신추진단은 4개 분과 28개의 세부 혁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4대 핵심과제인 '선박별 탄소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민원 서류 간소화', '협력형 사업혁신 구민아이디어 경연', '직무중심 보수 체계 고도화'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겠습니다.



부산시 및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부산경제활성화기금 BEF 업무협약, 체결

8월 24일(목) 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과 함께 부산시와 '부산경제활성화기금 BEF(Busan ESG Fund, 이하 BEF)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BEF 기금 11.7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안전·투명경영을 위한 ESG경영 바우처 제공, 에너지·환경·건설·해양·항만업 관련 ESG 분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해양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해지니 4기 발대식 개최

8월 31일(목) 공사 태평양회회의실에서 대학생 기자단 '해(海)지니 4기'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사는 '22년부터 대학생 기자단 '해(海)지니' 운영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도 제고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4기 모집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 총 31개 팀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상위 6개 팀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6개 팀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운산업 전반에 대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 금융약정 체결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 투자승인을 완료하고, 8월 31일(목) KDB산업은행, BNK 부산은행과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투자한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최소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총 투자 지원 규모는 2,400억원이며, 이 중 공사는 1,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금융약정은 정책금융기관(산은) 및 민간기관(BNK)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국내 해운항만 사업자의 최신 자동화 항만 확보를 지원하여 국내 물류 공급망 인프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사는 국내기업의 안정적 수출입 공급망 확보와 인프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중소 해운선사 ESG전략설계 실무교육 성료

9월 1일(금) 한국해운협회, 한국선급과 함께 국책선사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ESG전략설계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ESG전략 전문가를 통해 '해운업계 ESG경영 최신 동향', 'ESG 기반 성과관리체계 수립방안',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소개', '단기·중장기 실천과제 도출' 등을 살펴보고 ESG전략설계 도입과 관련한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ESG경영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 ESG 각 부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국내 해운산업 ESG경영 도입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더욱 청렴한 해진공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우들을 위한 코너!
공사의 청렴·윤리 활동 소식과 헛갈리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룬 영화까지 만나보세요.

KOBIC 청렴 윤리 활동 소식



2023 KOBIC 청렴 슬로건 사내 공모 수상작 발표 및 기념품 배포

윤리경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청렴슬로건 우수작 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모두가 함께 청렴해(海), 한국해양진흥공사' 슬로건은 친환경 우산에 각인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청렴 슬로건 사내공모전과 기념품 배포를 통해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내재화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채용)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KOBIC 채용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사 청렴 부문 우수분야(채용)를 홍보하고, 채용절차 상 위반 시 조치사항과 채용 비리 상담 및 신고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양방향 소통형 청렴컨설팅을 통해 공사 청렴 정책을 대외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긴가민가 청탁금지법(금품 등의 수수 금지)

Q1.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될까요?

A1.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또는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까지 가능) 선물의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3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지난 7월 공사 윤리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2023년 청렴슬로건 사내공모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작 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들의 제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추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온라인 반부패·청렴 교육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청렴자가 학습시스템(Clean Ocean) 참여를 통해 전 직원이 반부패·청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청렴 관련 제도 등을 시각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Q2.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도 될까요?

A2.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가능하므로 명절을 맞아 5만원 이하의 선물 또는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까지 가능)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음.

KOBIC 청렴 스크린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020년)

감독 이종필
출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등
장르 드라마

입사 8년차 동기인 말단 여직원들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모인다! 실무 능력 퍼펙트, 현실은 커피 타기 달인인 생산관리3부 오지랴 '이자영'(고아성), 추리소설 마니아로 뼈 때리는 멘트의 달인 마케팅 부 돌직구 '정유나'(이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실체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달인 회계부 수학왕 '심보람'(박혜수)은 대리가 되면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른다. 내부고발이라도 하게? 나서지 마. 우리만 다쳐.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한 '자영'은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세 친구는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를 시작하는데...

Point!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용감한 친구들



체인질링 (2009년)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안젤리나 졸리, 존 말코비치
장르 드라마, 범죄, 미스터리

1928년 LA, 회사에서 돌아온 싱글맘 크리스틴(안젤리나 졸리)은 9살 난 아들 월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아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을 수소문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크리스틴은 다섯 달 뒤 아들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찾은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다. 사건을 해결해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경찰은, 자신의 진짜 아들 월터를 찾아달라는 크리스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고, 아들을 찾으려는 크리스틴은 홀로 부패한 경찰과 세상에 맞서기 시작한다.

Point! 홀로 세상에 맞선 여인



제보자 (2014년)

감독 이문세
출연 박해일, 유연석, 이경영 등
장르 드라마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이장환' 박사의 연구 결과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PD추적 '윤민철' PD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장환'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해오던 '심민호' 팀장은 '윤민철' PD에게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줄기세포 실험 과정에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제보자의 증언 하나만을 믿고 사건에 뛰어들 '윤민철' PD는 '이장환' 박사를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여론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방송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줄기세포 스캔들의 실체가 밝혀진다.

Point! 진실을 향한 투쟁



양자물리학 (2019년)

감독 이성태
출연 박해수, 서예지, 김상호 등
장르 범죄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양자물리학적 신념을 인생의 모토로 삼은 유희계의 화타 '이찬우'는 어느 날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파티 사건을 눈치챈다. "불법 없이! 탈세 없이!" 이 바닥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범죄정보과 계장 '박기현'에게 이 정보를 흘린다.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마약파티가 연예계는 물론 검찰, 정치계까지 연루된 거대한 마약 스캔들을 알게 된 '이찬우'! 이제는 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 '이찬우'는 '박기현' 계장을 비롯해 황금민맥을 자랑하는 업계 권 '성은영' 등 업계 에이스들과 함께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한다. 부패 권력에 통쾌하게 맞서라!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니까!

Point! 부정부패 세력을 향한 통쾌한 반격

바다가 차린 식탁, Ocean recipe

선선해진 공기와 함께 식도락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 풍요의 계절로 불리는 가을엔 제철 해산물로 바다를 맛있게 즐겨보세요. 가을이 제철인 해산물, 실패 없이 고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속이 팍 찬 밥도둑, 꽃게의 유혹



봄에는 알이 차오른 암꽃게가, 가을에는 살이 차오른 수꽃게가 제철이다. 고소 담백한 맛에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고르는 법

- 몸 전체가 크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살이 차서 무거운 것
- 수게는 배가 좁고 뾰족하며 암게는 둥근 무늬로 구별
- 배 부분의 껍질과 다리가 희고 윤기 나며 단단함
- 배가 누렇거나 거뭇거뭇한 것은 싱싱하지 않다는 뜻



활용 요리 양념게장 / 꽃게찜 / 꽃게탕



굽은 허리도 펴게 하는 가을 대하

제철을 맞이한 대하는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하다. 자연의 단맛이 듬뿍 배어있는 대하를 만나보자.

고르는 법

- 흰다리새우와 달리 수염 길이가 몸통의 2~3배
- 신선할수록 형광과 초록색이 도는 꼬리 색깔
- 내장이 보이지 않으며 눌러봤을 때 단단한 느낌
- 산지에서 바로 먹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대하는 보기 어려움



활용 요리 바타규이 / 소금구이 / 대하튀김



깨처럼 고소한 물고기, 돌아온 전어의 계절

그 이름부터 '돈을 생각지 않고 먹는다'는 의미가 있을 만큼 맛과 영양이 좋은 전어. 특히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고르는 법

- 눈동자가 투명하고 노란빛
- 아가미 옆 검은 점이 선명하며 벗겨지지 않은 비늘
- 은백색으로 빛나는 배
- 수조에 부딪혀 코가 빨갱게 부어있지 않은 것

Tip!

추석 이후로 전어 가격이 떨어지는 편이니, 맛있는 전어를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때를 노려보자.



활용 요리 전어회 / 초무침 / 전어구이 / 전어튀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별미, 낙지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수산물인 낙지다. 살이 올라 맛과 향취가 빛나는 가을 낙지를 즐겨보자.

고르는 법

- 눈이 튀어나오고 몸이 전체적으로 회백색
- 흡반의 흡착력이 강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 살이 두껍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



활용 요리 산낙지회 / 낙지볶음 / 연포탕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실천수칙



<p>01</p> <p>필수정보만 최소한, 추가 정보는 동의 필수</p>	<p>02</p> <p>민감 정보 처리금지 -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p>	<p>03</p> <p>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금지</p>
<p>04</p> <p>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p>	<p>05</p> <p>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p>	<p>06</p> <p>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p>
<p>07</p> <p>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p>	<p>08</p> <p>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보</p>	<p>09</p> <p>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p>

